

The Gospel of Mark

Sermon 49 – Sermon Notes

Title: “Fig tree part 1”

Scripture: Mark 11:12-14

Date preached: August 13th 2023

Scripture: Mark 11:12-14

12 Now the next day, when they had come out from Bethany, He was hungry. 13 And seeing from afar a fig tree having leaves, He went to see if perhaps He would find something on it. When He came to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for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14 In response Jesus said to it, “Let no one eat fruit from you ever again.”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13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 14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Review

Before we examine today's portion of scripture let's spend a few moments reviewing what we looked at last time.

We began chapter number 11. This means we are now entering the final third of Mark's gospel. Actually closer to 40% of Mark's gospel is devoted to the final week of the earthly ministry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We commonly refer to this period of time as the "passion week." The week begins with the triumphal journey from the small hillside town of Bethany into the city of Jerusalem. This journey ends very significantly at the temple. Today we mark this day in our calendars as "Palm Sunday." Let us remind ourselves now about this very important event in the life of Jesus.

The Lord Jesus accompanied by the disciples had travelled up the mountain from Jericho and arrived in the hillside towns of Bethany and Bethphage. Both towns were located on the Mount of Olives and commanded an impressive view of the Holy city of Jerusalem. Bethany, which is very familiar to gospel readers was the home to the Lord's close friends Lazarus, Martha and Mary. It was also the place where the Lord Jesus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It would serve as His home base during this final week. He would commute daily to and from the city of Jerusalem. Not a great deal is known about Bethphage. It's exact location today is unknown. It was most likely a smaller town or village across the valley from Bethany.

Upon arrival in Bethany Jesus sends two of His disciples over to Bethphage to collect a colt (the foal of a donkey). As I noted last time there is some debate about this situation.

Had the Lord Jesus made a prior arrangement with the colt's owner? This of course would explain why the owner would willingly let it go without question. Or is this an example of Jesus using His supernatural understanding and power? I am more inclined to think that this is an example of our Lord using His divine powers.

The choice of a colt as the animal to carry Jesus is highly significant. Today we might think a donkey is a rather unimpressive animal to ride, especially for a king or other important person.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at the Lord Jesus did not ride into Jerusalem as a great military or political leader. Such men ride mighty stallions decorated with banners and protected by armour. They want to impress and make a bold statement. Our saviour came as a suffering servant, a man of peace. Therefore the humble donkey was appropriate.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in the Jewish mind a donkey was a suitable and fitting animal for a

king to ride. King David, the greatest king in Israel's history had happily ridden a donkey. Even more importantly to ride on a colt is the fulfillment of prophecy. The prophet Zechariah spoke of the "great king," the one who would bring salvation to his people riding on a donkey. But not just any old donkey, a colt, the foal of a donkey. You can read about this prophecy in Zechariah chapter 9 verse 9.

The colt is brought to Jesus and since there is no saddle the disciples throw their clothes over its back. The procession then begins. It is a journey of around 2 miles (3.2 km) from Bethany to Jerusalem. As they make their way we see an amazing reaction from the people around. Given the time of year many of these people were most likely pilgrims making their way to Jerusalem. Mark tells us that many in the crowd took off their outer garments and lay them on the road. This act was typically only performed when royalty approached. A laying down of a "red carpet" of clothes was highly symbolic. It was a way of stating that you submitted to the authority and rule of this particular king. It was an act that showed that you were content to live under this "kings feet."

Others in the crowd cut down palm branches or leaves and waved them joyfully as Jesus passed. Once again this is highly symbolic. Palm branches in the ancient world represented goodness, well-being, grandeur, steadfastness, and victory. They were often depicted on coins and carved into important buildings.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잠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11 장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3 분의 1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거의 40%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주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에는 작은 산비탈 마을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승리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성전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오늘날 달력에 이 날이 "종려주일"로 표시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해 상기해 봅시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산으로 올라가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언덕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두 도시 모두 감람산에 위치해 있었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복음 독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베다니는 주님의 가까운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은 주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주 동안 그분 사역의 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매일 이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갑니다. 벳바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베다니에서 계곡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어 망아지(당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 상황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물론 주인이 의심없이 기꺼이 놓아주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전능의 예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신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태울 동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나귀가 특히 왕이나 다른 중요한 인물이 타기에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위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깃발로 장식되고 갑옷으로 둘러싸인 강력한 종마를 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대담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고난 받는 종, 평화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당나귀가 적절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당나귀가 왕이 타기에 적합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은 기쁘게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자 스가라는 나귀를 타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위대한 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당나귀 또는 당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스가랴 9 장 9 절에서 이 예언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안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옷을 등에 엮었습니다. 그런 다음 행렬이 시작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2km의 여정입니다. 행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연중 시기를 감안할 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마가는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족이 접근했을 때만 행해졌습니다. 옷을 깔아 "레드 카펫"을 놓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특정 왕의 권위와 통치에 복종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왕의 발' 아래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무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나 잎사귀를 꺾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기뻐하며 흔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상징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선함, 행복, 웅장함, 굳건함,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 것들은 종종 동전에 묘사되고 중요한 건물에 새겨졌습니다.

For example King Solomon had palm branches carved into the walls and doors of the temple (1 Kings 6:29, Ezekiel 41:18-20). As tokens of joy and triumph palm branches were frequently used on festive occasions (Leviticus 23:40, Nehemiah 8:15). Kings and conquerors were welcomed with palm branches being strewn before them and waved in the air. What a sight it must have been as the Lord Jesus approached Jerusalem.

Mark also tells us what the people shouted, chanted or maybe even sung. They chanted part of Psalm 118. This Psalm forms part of the Hallel psalms (Pss. 113–118). These psalms in part, or in full were commonly sung by pilgrims during important festivals such as the Passover. Their chant begins with “Hosanna,” translated as, “save now I pray oh Lord.” What fitting words as the one God sent to save mankind rides into the Holy city.

The Lord's journey concludes at the temple and then with Him returning to Bethany. As I said last time we might view this as a rather anticlimactic ending.

If Jesus was the political messiah the people anticipated we might have expected Him to go to the residency of the Roman governor. Or to march and protest in front of Herod's palace. We might imagine Him giving a speech or proclaiming what He would do next. This of course was not what the Lord Jesus came to do. He came to be the one to sacrifice Himself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 temple was where sacrifices were made so it is the logical place for Him to go. It also again fulfils prophecy.

The prophet Malachi said that the temple was where the Messiah would appear (Mal 3:1). So Palm Sunday ends. Today we will look at some of the events that take place on the following day; Monday.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은 종려나무 가지를 성전 벽과 문에 새겼습니다(왕상 6:29, 에스겔 41:18-20).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표시로 축제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레 23:40, 느 8:15). 사람들이 왕들과 정복자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 앞에 흩뿌리고 흔들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대단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또한 사람들이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편 118 편의 일부를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 시편(시 113~118 편)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시편의 일부 또는 전체는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축제 기간 동안

안 순례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들의 성가는 "호산나"로 시작하는데, 이는 "오 주여 구하소서"로 번역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오고있으니 얼마나 합당한 구절입니까?

주님의 여정은 성전에서 끝나고 베다니로 돌아오심으로 끝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다소 반전적인 결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라면 로마 총독 관저로 가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또는 헤롯의 궁전 앞에서 행진하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연설을 하시거나 다음에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므로 그분이 가셔야 할 논리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다시 예언을 성취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메시야가 나타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말 3:1). 이렇게 종려주일은 끝납니다. 오늘은 다음 날 즉 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의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Introduction

The incident that we are going to examine today is one that many find a little perplexing or puzzling. Many throughout the centuries have read these verses and found them troubling or even disturbing. One of the commentaries I looked at described it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stories” in the gospels. Some have gone as far as to say that the Bible would be more acceptable if Jesus’ unreasonable anger at an innocent tree could be easily explained away.

The atheist Bertrand Russell (1872 -1970) even included the fig tree incident in his 1927 book entitled “*Why I Am Not a Christian*.” He cited the account as evidence for why he could not be a Christian or follow the teaching of Jesus. He said this incident with the fig tree displays Jesus as a man who expresses vindictive fury to an innocent plant, manifesting behaviour that is not conducive or consistent with even a righteous man, let alone the Son of God.

The Jewish historian and professor of Hebrew literature Joseph Klausner wrote that it was “a gross injustice on a tree which was guilty of no wrong.” And biblical scholar William Barclay said, “The story does not seem worthy of Jesus. There seems to be a petulance in it”

What's your reaction to it? Do you think that Jesus is responding overly harshly to this poor fig tree? We all know that fruit has a growing season and becomes ripe at a certain time during the year. In summer, we enjoy watermelons and peaches. We might like a persimmon, but they are not ready to eat until autumn. We understand therefore that it's unrealistic to think that we can get fruit at any time we choose. There's a nice date tree growing right outside my veranda window. I can reach out and pick a nice fresh date when they are ready. But I can't pick a date from the tree in January or February. That's just not the way nature works.

Even Christians who hold the Lord Jesus in the highest regard are at times puzzled by this story. Some say that this incident represents a terrific waste of supernatural power. Shouldn't Jesus have used His power to do good rather than do something negative. Such people claim that it challenges our thinking to imagine why Jesus would react in such a manner. We should also note that this incident is unique. It is the only miracle of destruction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So I hope you agree that this is a story we need to examine closely. What exactly is going on here? Let's find out.

오늘 검토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수세기 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곤란해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내가 본 주석 중 하나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고한 나무에 대한 예수의 비합리적인 분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이 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무신론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은 1927 년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거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증거로 그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무고한 식물에 보복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이자 히브리 문학 교수인 Joseph Klausner 는 그것이 "죄가 없는 나무에 대한 총체적인 불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인 William Barclay 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거기에 심술 사나운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무화과나무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과일은 자라는 계절이 있고 일년 중 특정 시기에 익습니다.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를 즐깁니다. 우리는 감을 좋아하지만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이해합니다. 저희 베란다 창 밖에 멋진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손을 뻗어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월이나 2 월에는 나무에서 대추를 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이치상 대추 열매가 겨울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때로 이 이야기에 당황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초자연적인 힘의 엄청난 낭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일을 하기보다 선한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을까라고 상상하는 우리의 생각에 도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이 독특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파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이야기라는 점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12 Now the next day, when they had come out from Bethany, He was hungry.

We pick up the narrative on the Monday morning following Palm Sunday. Jesus you will remember had left the temple, travelled back to Bethany and spent the night there. Now He is making His way back to Jerusalem, and He's hungry. This is one of the many proofs given to us in the New Testament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s really man. He had a nature and bodily constitution just like our own. We are just like Him in all things except one. He was perfect and without sin. We are not. This means that just like us He could weep, rejoice and suffer pain. He could also be weary and need rest. It also means as is the case here that He could be hungry and need food.

It was common practice in Jesus day to begin the day with a solid morning meal. The Jews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starting the day with a good breakfast.

A day working out in the fields, fishing or constructing things required energy. So some have wondered why Jesus is hungry here. It's an easy enough problem to resolve. Perhaps the Lord Jesus was in a hurry and left that morning without breakfast. Perhaps this event occurred later in the morning and it is actually closer to lunchtime. Whatever the case as they walk along Jesus has His mind focused on food. Let's read on.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전날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돌아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길에 배가 고프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간이셨다는 신약성경에서 주어진 많은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신체 구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분과 같습니다. 그는 완벽했고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처럼 울고 기뻐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처럼 그가 배고프고 음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 시대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공사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굶주리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아마도 주 예수님은 서둘러 떠나느라 그날 아침 식사를 거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아침 늦게 발생했으며 실제로는 점심 시간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음식에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3 And seeing from afar a fig tree having leaves, He went to see if perhaps He would find something on it. When He came to it, He found nothing but leaves, for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As the Lord Jesus is walking along He sees a fig tree in the distance. The tree was displaying plenty of green foliage. This as we will shortly see is a good sign. But when the Lord got close He saw that there were no figs present. This was, Mark tells us because it was too early for ripened figs to be ready. Let me unpack what's going on here. You are about to learn some hopefully interesting things about fig trees in Israel.

The events that we are reading about here took place at the time of the Passover. Passover occurs in the Hebrew month of Nisan, the first month in the Jewish calendar. This means that Passover is an early spring feast taking place in March or April. This is not the time for figs in Israel. Figs are not ripe and ready to be picked and eaten until at least May.

However something interesting does occur to fig trees in the spring. In the spring fig trees will send out little knobs or buds called “early figs” or *paggim*. These *paggim* are not real figs, but they are the subsurface for producing figs. After these little knobs have developed, a growth of leaves follows from it. Sometimes weary, and very hungry travellers might pick these *paggim* from the fig trees and eat them. Even though they are still green and not fully developed they are still edible and able to sate your hunger.

So the argument being presented here is that Jesus saw the green leaves on the tree from a distance and assumed that some *paggim* should have been present. His great displeasure stemmed from the fact that although all the signs were present for figs (green leaves) there were no figs.

However we cannot overlook the comment Mark makes that it was **not the season for figs**. The problem this raises is that it calls into question the Lord Jesus' common sense. It's rather like with the date tree outside my window. You'd think I was very strange and lacking in good sense if I got angry and frustrated that there were no ripe dates growing in December. You'd quite rightly tell me I shouldn't expect to see dates at this time of the year. So is there a better explanation? I think there is.

This answer comes from someone who dedicated their life to researching everyday life in Jesus' day. Dr. James Kelso was an expert on the culture and customs of first century Palestine. His theory is as follows. In Palestine there is a clearly defined season for figs. As I mentioned before most figs are ready for picking in May or June. However, there are a few rare species of fig trees that bear fruit outside of the normal fig season. Ripe figs can be found on these trees in other months of the year. The test for whether the tree in question was one of these kinds of tree was to examine the foliage. If the tree was in "full bloom" (leafy and green) it meant that one could expect to find figs not simply *paggim*. So according to Dr Kelso when the Lord Jesus saw the fig tree in bloom He assumed it to be one of the rare kinds of tree that bears fruit outside of the regular fig season. Our Lord was a native of that region and familiar with the plants and trees that grew there. Therefore He knew when fruit might be expected. However instead of finding a delicious fig He found the tree barren. This explanation I think better explains this story. The tree should have had fruit, it gave every outward appearance of having fruit but in reality none was present. Let us read on.

13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

주 예수께서 길을 걸으실 때 멀리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그 나무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거기에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가 무르익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읽고 있는 사건은 유월절 때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의 첫 번째 달인 니산월의 히브리 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3 월이나 4 월의 초봄의 절기임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적어도 5 월이 되어야 무르익어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 무화과나무에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봄에 무화과나무에는 "초기 무화과" 또는 파깅 *paggim* 이라 부르는 작은 덩이 또는 새싹이 생겨납니다. 이 *paggim* 은 진짜 무화과가 아니라 무화과를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이 작은 덩이가 생긴 후에 잎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매우 배고픈 여행자들은 무화과나무에서 이 파깅 *paggim* 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푸르고 완전히 발육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주장은 예수가 멀리서 나무의 푸른 잎사귀를 보고 파깅 *paggim* 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불만은 무화과(푸른 잎사귀)와 관련된 모든 표시가 있었지만 무화과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었다는 마가의 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주 예수님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창 밖의 대추나무와 비슷합니다. 12 월에 잘 익은 대추가 없다는 것에 화를 내고 답답해한다면 내가 참 이상하고 상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년 중 이맘때에 대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 시대의 일상 생활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Jam

es Kelso 박사는 1 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다 음과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의 계절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무화과는 5 월이나 6 월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무화과 철이 아닌 때에 열매를 맺는 희귀한 무화과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연중 다른 달에 이 나무에서 잘 익은 무화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나무가 이러한 종류의 나무인지에 대한 테스트는 잎사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만개"(잎이 무성하고 푸름)해 있으면 단순히 *paggim* 이 아니라 무화과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elso 박사에게 따르면 주 예수께서 만개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무화과철이 아닌 때에 열매를 맺는 희귀한 종류의 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역 출신 이셨고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과 나무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맛있는 무화과를 찾는 대신 열매를 맺 지 못하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설명이 이 이야기를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 것 도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4 In response Jesus said to it, “Let no one eat fruit from you ever again.”

We come here to the Lord's response to this fig tree and its lack of figs. He cursed it for giving the appearance of being fruitful, but in actuality producing no fruit. As I mentioned in my introduction many are puzzled and even offended by our Lord's act here. What did this poor tree do to deserve forever being cursed? If we feel this way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this is the God's world. As its creator He is entitled to do with it as He sees fit.

The Lord Jesus saw this situation as the perfect opportunity to teach the disciples, and us an important object lesson. Or as some might see it as an acted out parable. One of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ion tools we can use is the object lesson. Words by themselves can be effective, but God has designed our minds to better understand and remember things when we make multiple mind connections. So words, images and objects when combined are powerful teaching devices.

I spoke about this before when the Lord Jesus used a little child (the object) to teach a lesson on how we should approach God. In the Old Testament we see another well known object lesson in the life of the prophet Amos. The prophet Amos use a plumb line (a tool to ensure vertical straightness) to visually illustrate a truth of God (Amos 7). When God said to Amos that He was setting a “plumb line” among His people, He was declaring an end to their attempts to justify their crooked ways.

The Lord Jesus as we know fulfilled three distinct roles; prophet, priest and king. Here He is acting in the role of prophet. In a similar way to Amos He will use an everyday object (a fig tree) to communicate an important spiritual truth.

So what is the important spiritual truth? This is the key take-away here. You can put all the talk of figs and growing seasons to one side. The Lord Jesus here is addressing the **sin of hypocrisy**. The fig tree represents the nation of Israel. God had looked to that generation of Israelites for spiritual fruit, in the same way that Jesus had hoped to find physical fruit on the fig tree. Just like the fig tree the people of Israel gave the outward appearance of being deeply religious and righteous, but there was no real fruit.

This sadly was nothing new. Listen to the words that the prophet Isaiah received from God seven hundred years before Jesus. Isaiah condemned the hypocrisy of his day;

**“Inasmuch as these people draw near with their mouths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have removed their hearts far from Me,
And their fear toward Me is taught by the commandment of men,
(Isaiah 29:13)**

14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네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그 열매가 없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봅시다. 길보기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행위에 대해 당황하고 심지어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이 가없는 나무가 무슨 일을 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느끼기 전에 이곳은 하나님의 세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창조자로서 그분은 그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실물을 이용한 중요한 교훈을 주실 절호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acted out parable 연기된 비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 소통 도구 중 하나는 실물 수업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연결될 때 사물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어, 이미지 및 사물이 결합되면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됩니다.

나는 전에 주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어린아이(실물)를 사용하셨을 때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아모스의 생애에서 잘 알려진 또 다른 실물 교훈을 봅시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림줄(수직 직선을 보장하는 도구)을 사용합니다(아모스 7 장).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다림줄”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부패한 방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 예수님은 세 가지의 독특한 역할 - 선지자, 제사장 및 왕 - 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일상적인 물건(무화과나무)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기서 핵심 교훈입니다. 무화과와 성장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위선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적인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고 의로운듯 보였지만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칠백 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위선을 정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사야 29:13)

The Lord Jesus discovered that nothing much had changed in those intervening years. We see throughout the Lord Jesus' ministry His frequent challenges to the Pharisees and religious leaders on this very issue. They gave every appearance of being religious and devoted to God on the outside, but inside they were dead and cold towards God. On several occasions Jesus chastened the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for their external show of spirituality. They had an outward appearance of righteousness, but, and this is most important the absence of any fruit.

Next time we will see the Lord Jesus at the temple. It is here that we see this spiritual hypocrisy manifested in the extreme. God remember had blessed Israel as a people, but this blessing was not intended to be for them alone.

They were supposed to be a living example to the surrounding nations. A light shining in the darkness. They were intended to share God's love and call the Gentile peoples to repent and turn to God. But what did we see in the temple?

In the temple Gentiles were denied the opportunity to come close to God. They were restricted to the outer court. The poor were exploited by money changers and merchants. The temple culture by Jesus' day had grown big and impressive, but it was all a sham. From the outside it appeared to be doing mighty things for God. But behind the walls it was full of people only interested in their own selfish greed.

Jesus quite rightly cursed them for it. For their sin of hypocrisy they would be judged by God in just the same way that Jesus judged the fig tree.

Do you appreciate how harsh God's judgement was? In 63 AD the Jews revolted against Rome. The Roman legions crushed the rebellion and placed an iron grip over the land. From 135 AD Jews were forbidden from settling in the land of Israel. It would not be until 1948, 1813 years later that the Jews would get their nation back.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witness the Lord Jesus passing judgement on those misusing the house of God.

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냉정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만 영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성전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영적 위선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지만 이 축복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전상과 상인들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문화는 크고 인상적이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벽 뒤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무화과나

무를 심판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아십니까? 주후 63 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군단은 반란을 진압하고 그 땅을 철권으로 장악했습니다. 주후 135 년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1813 년의 시간이 지나고 1948 년이 되어서야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All leaves and no fruit

The great pastor and preacher Charles Haddon Spurgeon once noted that, "The great majority of persons who have any sort of religion at all bear leaves, but they produce no fruit." Today some read or hear those words and think them harsh. But take a look at the church across much of the world. It's full of nominal Christians. People who are Christian in name only. The church in so many places is dry, sterile and if not dead then in the slow process of dying.

I recently watched a drama set on the Azores. The people on those islands are Portuguese and devout Roman Catholics. I realise that this was a made for television drama, but I was struck by how important religious ritual seemed to be in their lives. There were numerous scenes of them attending mass, taking part in religious processions and venerating the saints. The problem was that the characters then went and acted in ways that showed me that their spirituality was just an act, a facade. Followers of Jesus are expected to live a life of faith that is revealed through godly living. It's vitally important that we remember that religious profession and observance are not enough to guarantee salvation. I'm sure of course that in reality there are many devout believers in the Azores. But it did bring home to me what we so often see across the Christian world. People who think that just appearing religious, or going through rituals is enough to save them.

We are not simply called to believe in a purely factual way that the Lord Jesus Christ died upon the cross for our sins it's supposed to change us. We are not supposed to encounter Jesus and remain the same. That we have a real living relationship with Him should be evidenced in our lives.

So, let us take a moment and examine ourselves. If the Lord Jesus looked us over what would He say? Would we get an A grade. Our lives are wonderfully fruit filled. We are using the gifts and talents He has given us in the best most profitable way. There is nothing more we could do. We all wish that were the case. But let us be honest, very few of us deserve an A grade.

Perhaps He would examine us and say that we were performing modestly. We would get a B grade. There is a little fruit but much more ought to be evident. We are not really using the gifts God has given us to the full. There is work to be done.

Or maybe upon our examination the Lord Jesus would be greatly disappointed. We would earn an F grade. Just like the fig tree in today's passage we all leaves but no fruit. Outwardly we appear religious; attending church every week,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being a believer but producing no fruit. We may fool others but we are not fooling God. So it's time for us to look at our own lives and become serious about what we are doing. The consequences for remaining fruitless are severe. Let me read you our Lord's Words as recorded in John.

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2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John 15:1-2)

Those are sobering words. Every person who does not bear fruit is taken away. I urge you therefore today to please think and pray deeply on that. Pray for the Holy Spirits' help and guidance on how you might produce more fruit in your life.

1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

위대한 목사이자 설교자인 Charles Haddon Spurgeon 가 말하기를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읽거나 듣고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이름 뿐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곳의 교회는 메마르고 불모지이며 아직 죽지 않았다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Azores 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포르투갈인이며 독실한 로마 가톨릭교인입니다. 나는 이것이 텔레비전 드라마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종교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놀랐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종교 행렬에 참여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영성이 단지 행위, 겉모습일 뿐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적 고백과 종교 의식이 구원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조레스 제도에 독실한 신자들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자주 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이거나 의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을 순전히 사실로 믿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실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열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A 학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보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B 등급 정도 받겠죠. 약간의 열매가 있지만 훨씬 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보시고 주 예수께서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F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믿는 자가 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1-2)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 Always “on”

Comedians or other public performers often talk about the concept of “being on.” This refers to their on stage persona. They recognise that in essence they are two different people. The regular ordinary person, and the performer or entertainer that people have come to see. They understand that they must “turn on” to be the lively, funny or entertaining person people want to watch. I've often heard it said that offstage comedians are rather dull and boring. We can probably relate to this in some way. It's hard work to be “on” and be entertaining, funny and humorous all the time.

When the Lord Jesus approached the fig tree it was not “on.” It was its off-season. But as believers we must always be “on.” We don't get to have an off season. We are not like comedians who must be “on” in order to make people laugh and once the performance is over can switch off. As Christians, we are always to be “on” and doing what we are commanded to do. Our Christian lives do not begin and end at the doors to the church. We may be called upon to share the gospel, offer words of comfort and advice, or just be a light in the darkness at any and all times. The Lord Jesus was greatly displeased to find the fig tree not doing what it was supposed to be doing. How do you suppose He feels about us when we are not doing what we are called to do? So let us make sure we are “on” and doing what is expected.

2 항상 “켜져 있기”

개그맨이나 다른 대중 공연자들은 종종 “켜져 있다”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대 위의 페르소나 *persona*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보러 온 공연자나 연예인. 그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활기차고 웃기거나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대 밖 개그맨은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고” 즐겁게하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지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나무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수기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켜져야 하고 공연이 끝나면 꺼질 수 있는 개그맨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명령받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문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나누거나, 위로와 조언을 하거나, 어둠 속의 빛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몹시 불쾌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켜져”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합시다.

